

철강업계, 인도시장 정조준... 불황 돌파구 연다

인도 철강수요 지속 증가 전망
포스코, 현대제철 등 현지 진출
“공급망 다변화하는 계기 될 것”

철강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신시장 개척을 통해 위기 극복 방안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및 건설 등 인프라 개발 부문의 꾸준한 성장으로 조강 소비량이 늘고 있는 인도를 타겟으로 삼아 반전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인도 철강수요는 지난해 1억 2000만톤에서 오는 2030년 1억 9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수요 전망치는 3억 3000만톤이다.

현재 국내 철강 수요가 연평균 5000

만톤인 점을 고려할 때 인도 시장은 한국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시장 입지를 다지며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현지 자동차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용 강관 수요가 급증하고, 항만 등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철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2026년 일본, 2028년 독일을 누르고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도시화율이 36.4%로 세계 평균(57.3%) 대비 낮아 향후 인프라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그룹은 인도 1위 철강기업 JSW그룹과 철강, 배터리 소재,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산 5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짓는다. 이를 통해 중국, 베트남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JSW그룹과 함께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공동 투자, 기술 개발 등 사업 협력을 모색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합작 일관제철소의 자가공급용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으로 양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인도 푸네에 내년 3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신규 철강 서비스센터(SSC) 건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인도시장에서 서북부 신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네SSC는 오는 2032년에 물량 23만톤

을 처리하는 대형 SSC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현대자동차의 HMI(Hyundai Motor India) 푸네공장향 차체 소재 공급 관리와 연계돼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시장의 긍정적 전망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자 상대 판매와 현지 가전 부품사 판매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 정부가 저가 중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국내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5%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의 인도 현지 진출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윌아이엠이 새로운 LG 엑스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LG전자 ‘LG 엑스붐’ 재단장

윌아이엠과 제품 방향성 설계

LG전자가 세계적인 뮤지션과 손잡고 무선 오디오 브랜드 ‘LG 엑스붐(xboom)’을 재단장한다.

LG전자는 합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멤버이자 사업가인 윌아이엠(will.i.am)에게 LG 엑스붐의 ‘새로운 경험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겼다고 10일 밝혔다.

윌아이엠은 뛰어난 음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성한 저음 기반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사운드’라는 LG 엑스붐 오디오 제품의 사운드 방향성을 설계하고 음향 튜닝 작업 등을 진행한다. 분위기에 맞춰 변경 가능한 조명과 한 손에 잡히는 스트랩 등 디자인 작업에도 참여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석희 SK온 CEO “기술혁신 통해 전동화 시대 가속”

고려대 CEO 특강... 첫 공개 활동
“배터리 성능 개선 위한 R&D 집중”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SK온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Envisioned Future, Together We Move Forward’ (예정된 미래, 함께 나아가자)를 주제로 진행한 CEO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에는 이차전지 관련 연구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CEO는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충현홀에서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SK온

들어가는 교육 혁신의 장인 SK미래관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SK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SK온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개발, 매년 매출 2배 성장 등 최고의 기록을 달성해왔다”라며 “미래 성장 목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동화 시대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동화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 개선”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기술 기반 제조업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온은 지난 5일 임원 인사를 통해 피승호 SK실트론 제조·개발본부장을 제조총괄로 선임했다. 피 총괄은 SK하이닉스에서 플래시공정T팀장, 연구개발(R&D) 공정담당을 지낸 제조 전문가다. /차현정 기자

발(R&D) 공정담당을 지낸 제조 전문가다.

이 CEO 역시 기술 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CEO를 지낸 바 있다. 현대전자, 미국 인텔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지난 2010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 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8년 SK하이닉스 CEO에 이어 2023년부터 SK온 CEO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SK온은 지난 7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CEO 특강 등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외에 카이스트, UNIST, 성균관대, 한양대 등 배터리계약학과를 통해 석·박사를 양성하고, 연세대한양대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R&D 부문 인재는 상시 채용 중이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홀딩스, 호주 리튬 공급망 확보

한국 업무협약... 年 3만 톤 규모 사업 추진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광산기업 헨콕(Hancock Prospecting)과 손잡고 이차전지용 원료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9일 호주 광산기업 헨콕과 리튬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용 원료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와 헨콕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중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며 투자금액 등 상세 내용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헨콕이 보유한 다양한 광산 자산과 연계해 미국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리튬 원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튬 광산, 염호에서부터 수산화리튬과 양



포스코홀딩스 이성원 리튬사업팀장(왼쪽부터), 헨콕 게리 코르테 CEO, 헨콕 대니얼 웨이드 사업개발 담당,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이 9일 리튬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그물망 밸류체인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부사장)은 “포스코홀딩스는 헨콕과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번 리튬 사업 협력에서도 최적의 사업구도를 검토해 좋은 결실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전선, 스웨덴 초고압 전력망 사업 수주

국영 전력청 계약... 1100억 규모

대한전선이 케이블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전선은 스웨덴 국영 전력청(Svenska kraftnat)과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도심을 관통하는 420kV(킬로볼트)급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약 규모는 약 11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톡홀름 내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스웨덴 전력청이 수년간 추진해 온 핵심 사업으로, 스톡홀름 북쪽의 안네베르크(Annabergr) 지역과 남쪽의 스킨스톨(Skinstull) 지역을 420kV 초고압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대한전선은 420kV급의 케이블과 전력기기 등 관련 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접속 공사와 준공 시험 등을 수행한다. /차현정 기자

420kV 전력망은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지중 교류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된다. 대한전선은 기술력과 품질, 엔지니어링 역량,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수주를 통해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과 아시아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확보하게 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 까다로운 시장으로 손꼽히는 스웨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전력망 수요 확대가 지속 예상되는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SK에너지 산재예방 캠페인 전개

SK에너지가 안전보건공단,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와 함께 ‘색으로 산재를 잡자’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SK에너지의 대표 생산현장인 SK 울산CLX는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현장 구성원들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적용가능한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해 11월부터 동력공장에 안전 디자인을 우선 적용했다.

SK 울산CLX 동력공장은 정유·석유화학 공장 운전에는 필수인 스팀을 생산·공급하며, 고온·고압으로 운전되고 배관 등 구조물이 많아 안전 디자인을 적용하기에 최적이다. SK 울산CLX는 우선 동력공장 내 구성원 이동통로, 대피로, 계단, 경계석 등에 안전 디자인을 적용했다. /차현정 기자